

# 1위 전북 vs 2위 울산, 오늘 시즌 첫 K리그 '현대가더비'



프로축구 울산 현대 수비수 경승현과 전북 현대 공격수 구스타보가 공중볼 경합을 하고 있다. (사진=프로축구연맹)

프로축구 K리그1 최고 라이벌전으로 자리 잡은 전북 현대와 울산 현대의 2021시즌 첫 '현대(家) 더비'가 열린다.

## 두 팀 승점 6점 차...선두 독주와 추격 갈림길 우승 레이스 최대 분수령...히비 엇갈릴 전망

전북과 울산은 21일 오후 7시 울산문수경기장에서 하나원큐 K리그1 2021 11라운드에서 맞대결을 펼친다. 두 팀은 지난 두 시즌 연속 K리그1에서 마지막까지 치열한 우승 경쟁을 벌였다. 올해도 순위표 가장 위에 두 팀이 자리해 있다. 10라운드까지 전북은 승점 26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최근 4연승을 포함해 10경기 8승2무다. 개막 후 무패인 팀은 전북뿐이다. 2위 울산은 6승2무2패(승점 20)로 전북을 추격하고 있다. 이번 대결은 시즌 초반 우승 레이스에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전북이 이기면 승점 차는 9점까지 벌어진다. 반대로 울산이 이기면 승점 차는 3점으로 좁혀진다. 현대가 더비를 앞두고 히비가 엇갈린 두 팀이다. 전북은 18일 성남FC와 홈 경기에서 한교원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리그 최소 실점 팀인 성남을 상대로 고전했으나, 기어코 골문을 여는 집중력을 발휘했다. 3연승을 달렸던 울산은 수원 삼성 원정에서 0-3 충격패를 당했다. 국가대표가 즐비한 울산은 김건희, 강현목, 정상빈 등 유스 출신을 대거 선발로 내보낸 수원에 압도당했다. 울산 수원에 패한 건 2017년 10월 15일(0-2패) 이후 3년 6개월 만이었다. 그러나 중요한 고비 때마다 발목을 잡혀 온 집중력 문제가 올해도 반복돼 우려를 자아낸다. 상대전적에선 전북이 울산을 압도한다. 전북은 2019년 5월 12일 1-2 패배 이후 울산에 진 적이 없다. K리그1 6경기에서 4승2무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정규리그에서도 세 차례 울산과 맞대결에서 전승을 거뒀고, 대한축구협회(FA)컵 결승도 1승1무로 앞서며 창단 첫 더블(2관왕)에 성공한 바 있다. 사령탑 대결도 관심을 모은다. 전북 김상식 감독과 울산 홍 감독 모두 올해 처음 K리그 지휘봉을 잡았다. 김 감독은 부임 당시 '화공(화공한 공격축구)'을 선언했고, 홍 감독은 '홍업 축구(불꽃같은 공격 축구)'를 자신했다. 주장 기성용의 부상 이탈 후 최근 공식전 5연패 수렁에 빠진 7위 FC서울은 21일 오후 7시 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제주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연패 탈출을 노린다. 서울은 리그에서 4연패를 당했고, 지난 14일 열린 서울랜드(2부리그)와의 FA컵 3라운드 첫 '서울 더비'에서도 0-1로 제 탈락하는 등 팀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 제주는 최근 2연승으로 리그 4위에 올라 있다. 특히 공격수 주민규가 4경기 연속 득점(6골)으로 물오른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다.

뉴스

## 여자배구 7구단 탄생...페퍼저축은행 창단 승인

### 연고지는 성남-광주 두고 검토 후 결정

페퍼저축은행이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7번째 구단이 됐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0일 마포구 상암동 연맹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페퍼저축은행의 7구단 창단을 승인했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달 23일 창단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를 검토한 이사회는 신생팀 창단을 최종 승인했다. V-리그 여자부는 2011년 IBK기업은행 이후 10년 만에 신생팀을 받게 됐다. 페퍼저축은행의 V-리그 가입비와 특별기금은 총 20억이다. 7번째 구단은 오는 2021~2022시즌부터 V-리그에 참여한다. 이로써 다음 시즌부터 여자부는 총 7개 구단으로 운영된다. 연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기도 성남시 또는 광주광역시를 두고 구단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신생팀 선수 수급으로는 먼저 2021년 신인드래프트에서 6명, 2022년 드래프트에서 1명의 선수를 우선 지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2022년 드래프트에서 1명의 우선 선수 지명 의

2021~2022시즌 최하위팀과 동일한 확률을 부여, 1라운드 선수를 추가 선발하기로 했다. 기존 선수들 중에서는 보조선수 9명을 제외하고 구단별 1명씩 지명할 수 있으며 외국인선수는 1순위로 트라이아웃을 통해 선발될 예정이다. 한편, 이사회는 국가대표 지원 계획과 남자부 연봉 공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KOVO는 "도쿄올림픽에서 활약할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해 6억원 규모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는 감독 전임제를 비롯한 코칭 스태프 지원, 재활 트레이너·전력분석관과 같은 훈련 인력 강화, 국가대



표팀 기본 운영비 등으로 쓰인다. 또한 바리볼네이션스리그(VNL)와 같은 국제대회에 따른 현지 의료비용과 국제대회 종료 시에 이뤄지는 선수 자가격리에 대한 방역 관련 지원이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KOVO는 남자부 연봉 공개와 관련해 기존 합의한 2022~2023시즌 전이라도 구단 자율로 연봉 및 옵션을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뉴스



강릉시청(팀킴) 선수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열린 2021 컬링 세계선수권대회 팀킴 및 맥스 더블팀 출정식 & 유니폼 발표에 참석해 새 유니폼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초희, 김경애, 김영미, 김선영, 김은정.

## 베이징 티켓 도전 나선 팀킴 "더 단단해져, 결속력 최고"

### 30일 개막하는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 출전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컬링 사상 첫 메달(은메달) 수확의 영광을 누리 뒤 부침을 겪었던 '팀킴'(강릉시청)이 한층 단단해진 결속력으로 2021 세계컬링연맹(WCF)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스킵 김은정, 리드 김선영, 서드 김경애, 세컨드 김초희, 후보 김영미로 이뤄진 '팀킴'은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에서 열리는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이 대회에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권 6장이 걸려있다. 대회를 앞두고 20일 서울 중구 남산드래펠리소에서 열린 출정식 및 미디어데이 참석한 김은정은 "연맹에서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하신다. 그런 만큼 우리가 더 안정적으로 집중해서 대회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올림픽 출전권이 걸려있는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겠다"고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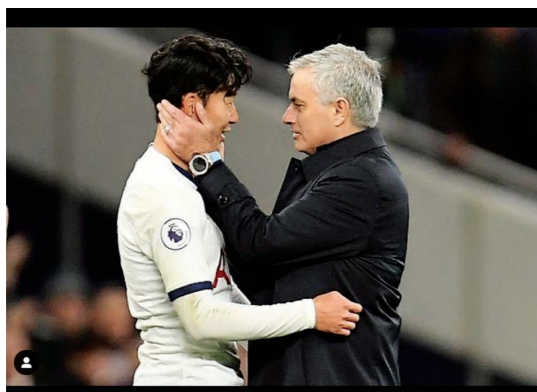
김경애는 "3월에 세계선수권대회가 예정됐다가 취소돼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지만, 마음을 다잡고 조금 더 많이 연습했다. 응원해주시면 조금 더 좋은 성적으로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김은정은 "준비기간이 평소보다 짧았다. 2~3개월이 6개월인 것처럼 훈련했다. 최선을 다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임명섭 감독은 "어느 팀을 만나든 우리 색깔과 기량을 보여주는 것이 목표다. 6강에 들어가 베이징올림픽 출전권을 따겠다"며 "그리고 플레이오프에 올라가면 우승까지도 노려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평창올림픽 은메달의 영광 이후 팀킴에게는 많은 일이 있었다. 김경두 전 대한컬링연맹 회장직무대행 일가의 갑질을 폭로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고, 소속팀도 의성군청에서 강릉시청으로 옮겼다.

김영미는 "이때까지 함께 하면서 희로애락을 같이 겪었다. 팀원들끼리 단단해지는 과정이었다"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결속력 같은 것이 있다. 서로 위해준다보니 경기력에서도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회는 팀킴이 2019년 3월 스코틀랜드 투어 대회 이후 약 2년 1개월 만에 치르는 국제대회다. 공식 국제대회는 2018년 3월 세계선수권대회 이후 약 3년 만이다. 일련의 사건들과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겹치면서 국제대회 공백기가 길었다. 실전 감각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김은정은 "한국 내에서 실전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 기본기 위주로 훈련하고, 아이스 훈련할 때에도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했다"며 "또 남자팀과 실전처럼 훈련하면서 감각을 끌어올리려 했다. 평창올림픽 때와 비교해 90% 정도는 올라왔다"고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팀킴은 이번에 새롭게 바뀐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댈다. 김은빈 컬링연맹 회장은 "애플라인드에서 선수들의 의견을 반영해 유니폼을 제작했다. 어깨 부분에 건곤감리는 팀킴의 아이디어"라고 소개했다. 오랜만에 국제대회에 나서는 팀킴에게는 캐나다 현지에서 '지원군'도 있다. 바로 평창올림픽 때 함께했던 피터 갤런트 코치다. 임명섭 감독은 "갤런트 코치를 2019년 9월 캐나다에서 본 게 마지막이다. 이후 영상 통화 등을 하면서 계속 연락했다. 훈련을 하는데 갤런트 코치가 도움을 많이 줬다"며 "선수들과 6년 가까이 함께 해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다. 정신적 지지 같은 역할을 한다. 캐나다에서 의지를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선수권대회에 플러스 요인"이라고 밝혔다.

## 손흥민, 무리뉴 감독에 작별 인사 "함께해서 감사했다"

### 토트넘 구단, 1년5개월만에 성적 부진 이유 해임



소속팀 토트넘 홋스퍼가 조세 무리뉴 감독을 경질한 소식을 들은 손흥민



(29)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작별 인사를 전했다.

손흥민은 19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에 무리뉴 감독과 함께 찍힌 사진을 올리며 "어떤 말로 내 기분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당신과 함께 일해서 기뻐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죄송하고, 함께 한 시간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미래에 행운이 있길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토트넘 구단은 무리뉴 감독과 그의 코치진이 직무에서 해임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2019년 11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의 후임으로 토트넘 지휘봉을 잡았던 무리뉴는 1년5개월 만에 팀을 떠나게 됐다.

성적 부진이 원인이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7위에 머물며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유로파리그 16강에서 디나모 자그레브(크로아티아)에 제 탈락했다. 오는 26일 맨체스터 시티와 리그컵(카라바오컵) 결승을 앞두고 있지만, 무리뉴 체제에선 우승컵을 들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질을 발표했다. 토트넘은 당분간 라이언 메이슨 코치가 감독 대행 맡는다. 해리 케인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모든 것에 감사했다.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기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뉴스

## 양현종, MLB 데뷔할까

### 텍스 스쿼드로 에인절스·화이트삭스전 원정동행

빅리그 진입을 꿈꾸는 양현종(33·텍사스 레인저스)이 이번 원정길도 '텍스 스쿼드'로 함께한다. 텍사스 구단은 2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에인절스 타디움에서 열리는 LA 에인절스와 메이저리그 원정 경기를 앞두고 게임 노트를 통해 텍스 스쿼드 5명을 공개했다. 좌완 양현종을 비롯해 우완 조시 보스, 헌터 우드, 내야수 엔디 이바네스, 포수 드류 부테라가 이 명단에 포함됐다. 텍스 스쿼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부터 도입된 제도다. 선수들의 개인 이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일부 선수들을 방명 경기 기간 텍스 스쿼드에 넣었다가, 로스터에 변화가 생기면 교체할 수 있다. 이 명단에 든 선수들은 선수단과 이동뿐 아니라 훈련도 같이 소화한다.



양현종은 지난 2-5일 열린 캔자스 시티 로열스전과 13-16일 진행된 탬파베이 레이스와 원정 경기에 텍스 스쿼드로 동행한 바 있다. 당시 풀업 기회를 얻지는 못했다. 그러나 텍스 스쿼드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건 로스터 변경 시 대체 자원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의미다. 텍사스는 이번 원정길에서 6경기를 치른다. 20-22일까지 LA 에인절스를 상대하고 24일부터 26일까지는 시카고로 이동,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3연전을 갖는다.

뉴스

## 김연경, 향후 거취에 "잘 생각해 결정"

V-리그 최고의 별 김연경(흥국생명)을 내년 시즌에도 볼 수 있을까. 김연경은 19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도드람 2020~2021 V-리그 시상식에서 여자부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2005~2006시즌 고교 졸업과 동시에 해성치림 등장, 그해 정규리그 MVP와 신인상을 휩쓴 김연경은 2007~2008시즌까지 3년 연속 MVP를 품에 안았다. 2008~2009시즌 후 해외 무대에 진출, 일본과 터키를 거친 김연경은 복귀 첫 시즌부터 정규리그 MVP를 차지하며 최고의 스타임을 입증했다. 김연경은 "기분이 좀 이상더라. 떨리기도 하고 이상했다. 이소영이 올 시즌 너무 잘했다. 이소영이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

데 나에게 돌아와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13년 전에 MVP를 받았는데 다시 MVP를 타면서 국내로 복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나에게 의미 크다"고 말했다. 김연경은 올 시즌 공격종합 1위(45.92%), 서브 1위(세트당 0.277개), 오픈공격 1위(44.48%), 시간차 2위(55.56%), 득점 6위(648점 국내선수 1위) 등 공격 대다수 지표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흥국생명을 2위로 이끌었다. 김연경은 흥국생명 잔류와 해외 리그 재진출을 두고 고민 중이다. 김연경은 "가능성이라는 걸 이야기하기도 곤란할 정도로 이야기하거나 정한 게 없다"면서 "이야기하기도 조심스럽다. 그래서 빨리 정하기보다는 조목조목 생각해서 결정해야 할 듯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